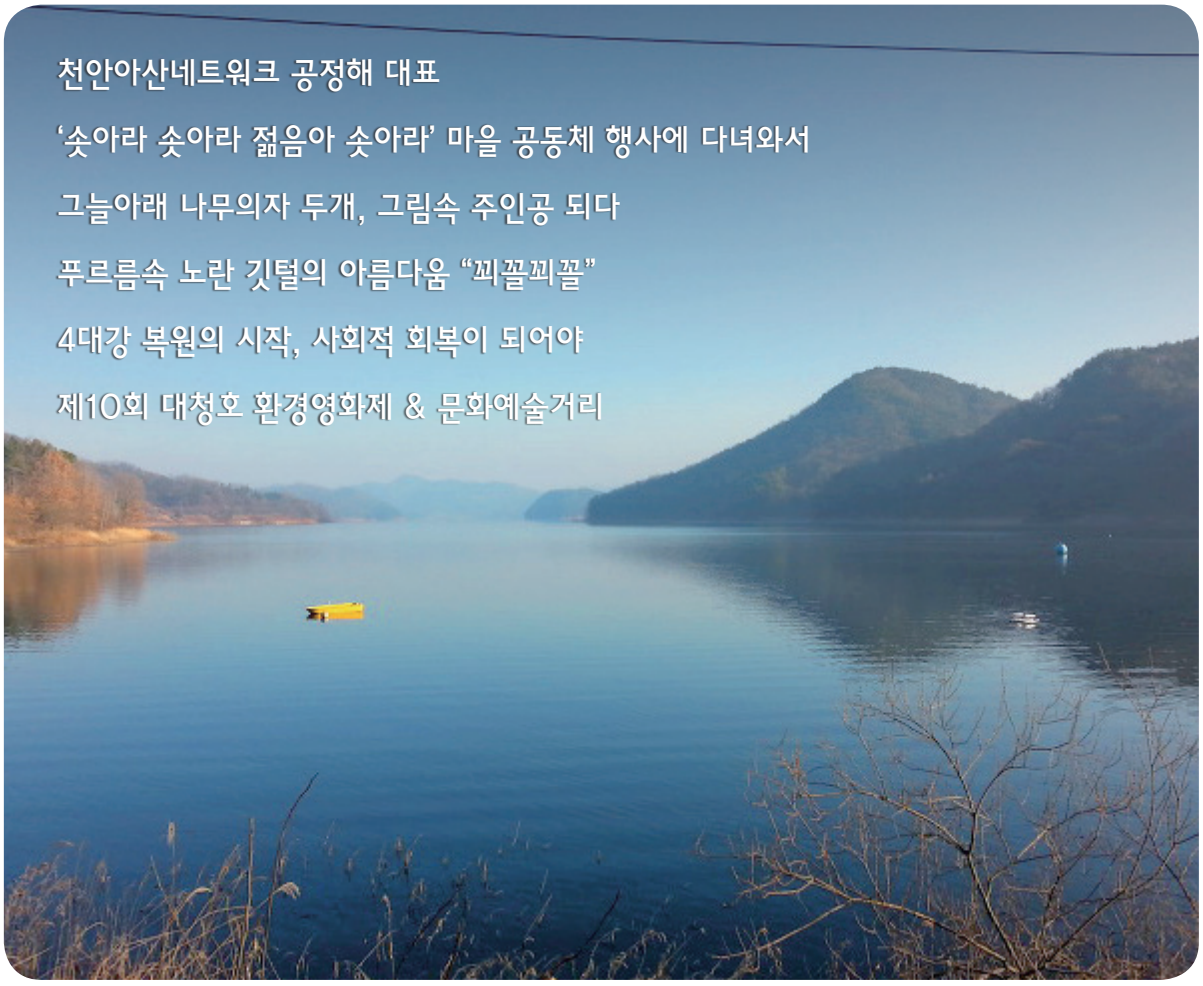
함께 만들어가는 맑은 금강, 깨끗한 대청호

대청호 소식

vol.107
2017 05+06월호



천안아산네트워크 공정해 대표

‘솟아라 솟아라 젊음아 솟아라’ 마을 공동체 행사에 다녀와서

그늘아래 나무의자 두개, 그림속 주인공 되다

푸르름속 노란 깃털의 아름다움 “꾀꼴꾀꼴”

4대강 복원의 시작, 사회적 회복이 되어야

제10회 대청호 환경영화제 & 문화예술거리

목련꽃 닮은 엄마

백진선 (5기 대청호해설사)

다소곳 예쁜 모습으로
짧은 생을 살다가신 엄마

그리움에 목이 메여
엄마하고 부르니

소리없이
뚝 떨어지는 목련꽃잎처럼
뚝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

가슴 미어질 듯
애절한 그리움에 쌓인
별빛이 내리는 밤

꿈결속에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에 눈을 뜬다.

대청호해설사는 우리단체 소모임으로, 대청호물환경교육을 운영하는 자원봉사모임입니다.
짧지만 진솔한 대청호해설사의 이야기로 대청호소식지의 첫장을 시작합니다.

CONTENTS

대청호 소식
2017 05+06 vol.107

2

6

14

22

2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53** [인터뷰] 천안아산네트워크 공정해 대표

6 **회원마을 스토리텔링 2** 옥천 석탄리 안터마을 공동체행사

10 **금강생태학습장 10** 대청호오백리길 1구간 대청호두메마을길

14 **대청호생태이야기 3** 꾀꼬리

18 **정책&이슈** 특별기고

22 **제10회 대청호환경영화제&문화예술거리**

25 **사무처 활동보고**

28 **네트워크 활동보고** 영동네트워크

30 **네트워크 활동보고** 옥천네트워크

32 **네트워크 활동보고** 보은네트워크

34 **대청호 NEWS & NEWS**

38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40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 소식 vol.107

발행일 2017. 6. 7
발행인 윤여표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윤여표
사무처 이건희, 임정미, 이성숙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이강혁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8-136 대청댐물문화관 2층

전 화 042)930-7340~1
전 송 042)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집 · 인쇄 월간 토마토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51 2층
042)320-7151

표지이야기 대청호의 6월 햇살이 물빛과 만나 은빛 윤슬을 만들어낸다. 대청호오백리길 1구간을 걷다보면 종종 만나는 호수 주변의 푸르름이 그 자체로 그림이 되고, 그속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은 어느새 힐링된 듯 가뿐히 이어진 길을 따라 걷고 또 걷는다. 마음의 평화와 쉼이 필요하다면 대청호오백리길 1구간 트레킹을 추천!

[인터뷰] 돌아온 파워우먼~ 천안아산네트워크 공정해 대표

“상하류 주민교류 통해 대청호 로컬푸드 실현해요”

귀농의 꿈 “푸른 숲속 농촌마을 공동체만들기 동참할 터”

글 **임정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교육국장

“5년만인가 봅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천안아산네트워크 실무활동가로 일했던 예전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네요.”

청명한 5월의 어느 봄날, 노오란 가디건을 입은 맑은 사람, 천안아산네트워크 공정해 대표를 만났다.

2009년 천안KYC 활동가로서 처음 대청호보전운동에 동참한 공 대표는 천안아산지역에서 물환경사랑 홍보캠페인을 비롯, 주민공동체 조직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밑작업부터 시작했다고.

“평범한 주부였기에 아이들에게 먹일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대청호 상하류 도농교류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운동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죠. 뿌듯했어요. 상류에서 건강하게 키운 농산물 먹거리의 생장과정을 이해하고, 다 키운 농산물을 우리집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연결해주는 교류활동에 보람이 컸죠”

특히 천안KYC의 기조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운동’이라며,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사업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컸기에 지역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모색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전한다.

그러한 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동안 공정해 대표는 간사부터 차근차근 일머리를 배우고 조직의 내실을 다지면서 오늘날 대청호보전운동의 최전선에 다시 동참하게 된 것. 5년만의 재회에 인터뷰내내 반갑고 든든했다.

반면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는데 각 단체마다 인적 자원의 한계를 실감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지역의 일꾼을 찾고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도 지역 단체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열악한 시민사회단체의 여건이 활동가육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어느 지역마다 공통과제이기 때문에 십분 이해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강화 및 활성화방안을 상시적으로 연구하고 모색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단체활동을 하며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고 공동체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그녀는 무엇보다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기회가 늘어났고 활동범위가 넓어졌으며 다채로운 경험이 가능해졌다고 전한다. 삶의 터닝포인트가 된 셈. 단체활동의 경험이 그녀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감지된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천안아산네트워크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시립작은도서관연합회,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천안시, 그리고 천안KYC가 참가하고 있으며, 사무국을 맡은 천안KYC를 주축으로 올해 친환경마을만들기운동 및 상하류교류 지원, 물사랑시민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수질보전의식 고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상하류주민이 함께 하는 어울림한마당, 상하류주민교류, 병천천조사활동을 통해 대청호를 알리는 한편 대청호보전운동과 수질보전의 가치를 일깨우는 물사랑시민교육에 방점을 찍고 기획, 진행하고 있으며, 참가단체 모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 모델로 삼고 있다.

지역단체 및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하며 끈끈한 연대를 다지기 위해 매월 1차례씩 운영회의를 주관하는 그녀는 동료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한다.

"깨끗한 세상, 사람이 만들어가는만큼 지역의 활동가들의 몫이 정말 중요하다"며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소망한다"고 밝힌다.

천안아산지역에서 대청호보전운동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공 대표는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한 이해와 물을 보내주는 이들에 대한 배려와 실천, 그것이 상하류 공동체의식이 아닐까 싶다"고 강조한다.

이와같은 의지는 곧 물과 흙을 살리는 친환경농업마을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대청호 중하류지역에서 소비해주는 대청호로컬푸드, 대청호상하류교류로 이어지는 실천운동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재해석된다.

"5년전의 네트워크활동과 현재의 그것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며 네트워크의 내발적 발전을 내심 강조한다. 스스로의 평가를 기본으로 네트워크사업의 방향성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필요함을 더불어 강조한다.

지역네트워크의 향후 전망이나 기조 등을 논의하고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며, 관행처럼 진행하던 내용에 대한 과감한 평가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피력한다.

"네트워크의 자발적인 발전, 그것이 중요한만큼 운동본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네트워크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부 사무처가 배경을 깔아주는 등 견인차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한다.

현재 천안KYC 비상근대표로 활동하는 공 대표는 충남도단위 마을만들기 주민자치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다양한 활동경력을 쌓고 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그녀는 미래에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마을만들기운동의 선봉에 서고 싶은 꿈이 있다고 전한다.

몇 년후 어느 초록빛 눈부신 농촌마을에서 두팔 걷어부치고 마을주민들과 이야기꽃 피우며 마을공동체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을 그녀의 활기찬 모습이 연상된다. 맑고 건강한 푸른빛 물을 닮은 그녀를 힘차게 응원한다. 파이팅!~

글 **박병춘** 대전대신고등학교 교사

“건강한 마을 공동체, 옥천 안터 마을에 가득하네!”

‘솟아라 솟아라 젊음아 솟아라’ 마을 공동체 행사에 다녀와서

모내기가 한창인 때, 대전에서 옥천 안터 마을까지 5월 녹색이 마음까지 물들였다. 농부의 땀방울만큼 땅의 생명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것이다. 이 진실 앞에 미소 지으며 안터마을에 도착했다.

다시 젊은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솟아라 솟아라 젊음아 솟아라”를 제목으로 문화 예술이 함께 하는 반상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총 72가구 186명이 거주하는 안터 마을.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고, 마을 안녕을 기원하는 장승제도 진행됐다.

안터 마을 장승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마을 안녕 기원제로서 그 역사성을 인정받아 학계 전문가들이 논의하여 옛날 방식을 찾아 전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행사를 주관한 박효서 안터 마을 이장을 반갑게 만났다.

"우리 농촌이 너는 너, 나는 나로 지내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천렵을 하면서 마을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 즐겼던 것처럼 우리 마을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어 즐겁고 유익한 마을 공동체로 거듭나고자 하는 거지요."

박 이장은 시골 마을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공동체가 살고, 마을 공동체가 살고,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희망의 공동체를 소망했다. 시골은 살맛나는 세상이어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손녀가 함께 살아가는 땅으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새로 이주해 오신 분들과 지역 토착민이 어우러져 문화 예술을 나누고 공유하며 건강한 마을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이 박 이장의 행사 추진 이유이기도 하다. 누구든 시골에 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형님 동생이 되는 게 시골이다. 사회적 지위를 빌미로 폼 잡은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박 이장의 시골 생활 지론이기도 하다.

외부에서 시골로 오는 사람들이 농촌 문화를 이해하고 반딧불이가 살아 숨쉬는 안터 마을의 친환경 생태 환경에 적응하여 편안하게 마을 구성원으로 동화되는 모습을 볼 때 박 이장은 행복을 느낀다.

이날 행사 중 마을 추억의 사진 전시회 또한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소망하는 결과물이었다. 충남 금산 농바우끄시기 보존회가 가뭄 극복을 위해 농바우를 끄셔(끌어당겨) 기우제를 지내는 '농바우 끄시기' 공연은 주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어냈다. '농바우 끄시기'는 충남 무형문화재로서 지역 주민들이 다수 출연해 다듬이질 소리 등 민속에 춤과 소리를 더해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 문화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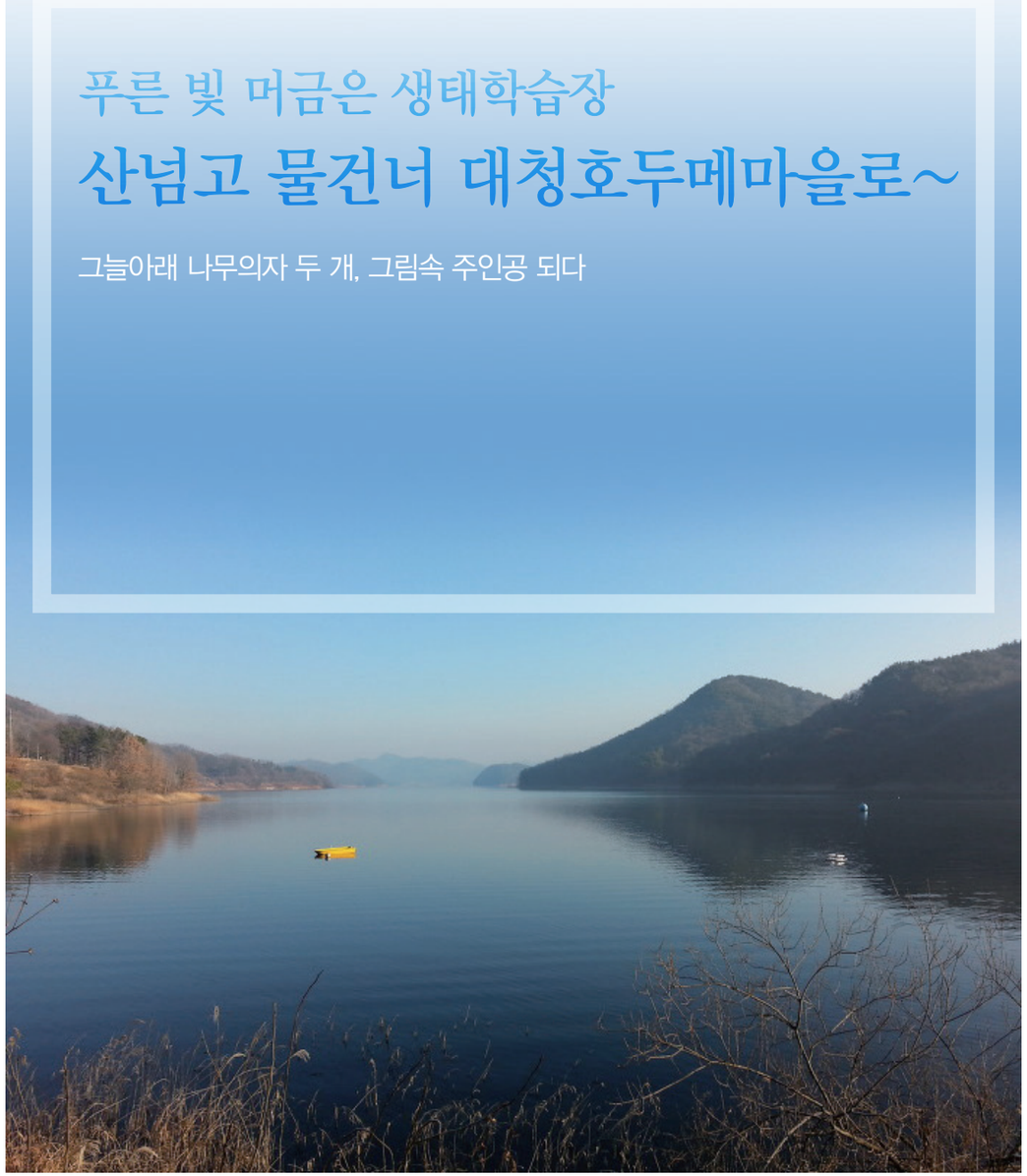
특히 마당극패 '우금치'가 '별을 먹는 장돌뱅이'라는 마당극을 주민과 함께 공연하여 큰 갈채를 받았다. 옛 장터의 다양한 장사치들이 특유의 재담과 익살로 삶의 애환과 기예를 선보여 마을 주민들과 신명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약간의 사진으로 감상하시기 바란다.

글 **김재식** 3기 대청호해설사

푸른 빛 머금은 생태학습장

산넘고 물건너 대청호두메마을로~

그늘아래 나무의자 두 개, 그림속 주인공 되다



대청호오백리길 1구간… 두메마을길 11.5km (약6시간 소요)

대청호는 대청다목적댐으로 조성된 인공호소다.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 큰 규모의 대청댐을 찾는 이들이 매년 많아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2010년 조성된 대청호오백리길이 알게 모르게 각광을 받으면서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청호주변으로 모여드는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대청호오백리길 외에도 대전시에서 조성한 호반길, 동구에서 만든 둘레길, 대덕구에서 만든 로하스길, 국토해양부의 누리길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여진 트레킹길이 다채롭다. 길마다 서로 중복되는 구간도 많고, 갈라지는 구간도 많다. 언젠가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이름이 통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현재 대청호는 수자원으로서도, 자연경관 문화자원으로서도 손색없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청호해설사가 된 이후 매년 오백리길을 밟는다. 2012년에는 21개 전구간 모니터링에 심혈을 기울였고, 구간마다 갖는 특색과 아쉬운 부분, 잘된 부분 등을 종합정리하다보니 작은 데이터들이 모여 제법 재미난 교육자료가 되고 있음에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

더불어 운동본부 격월간 소식지에 작게나마 소개하게 되니 감회가 새로우며,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대청호오백리길을 밟는데 작은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다.

1구간은 대청댐물문화관 뒷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울창한 소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등이 그늘을 만들어 주어 한여름에도 걷는데 무리가 없다.

간간히 오르막길이 있어 숨을 헐떡이게 되지만 호수와 나무들이 뿜어내는 수려한 배경에 매혹되어 잔잔히

걷기 좋은 길로 추천할만한 산책길이다.

특히 방향표시와 남은 거리를 안내해주는 입간판이 눈길을 끈다. 다래덩굴:깊은사랑, 머루:기쁨,자선,박애, 진달래:절제,청렴, 산철쭉:사랑의 즐거움 등등 정겹고 상냥한 입간판이 짧게나마 미소를 짓게 한다.

오백리길 안내책자에는 숯고개, 전망쉼터 표지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표시를 찾을 수 없다. 전망쉼터는 데크가 있어 쉼터로 유추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나무에 가려져 있어 아쉽다.

그곳으로부터 100여m 전진하면 나무 밑 나무의자 두 개가 한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져 있다. 1구간을 찾는 이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곳. 촬영이나 명상으로 잠시 쉬어가기 참 좋은 지점이다.

1. 1구간 시작점인 대청댐정상. 댐다리위를 거닐면서 막힌 물과 흐르는 물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다. **2.** 20여분 오르면 펼쳐지는 그늘밑 나무의자. 앉아만 있어도 그림이 되는 풍경.

첫 출발점으로부터 약 2km가량을 전진하면 비상여수로댐이 눈앞에 펼쳐진다. 여기서 다시 대청호수쪽으로 쭉뻗은 113봉을 지나 158봉 미호동산성이 있는 영지산에 오른다. 사실 산성의 흔적은 일부만 남아있어 해설을 듣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 아쉽다.

영지산에서는 나무사이로 청남대를 엿볼 수 있다. 정상을 지나 우측 오백리길 방향표지를 따라 내려가면 길 양옆으로 조성된 자작나무 숲길을 따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조여수로로 이어진다.

보조여수로댐위를 건너 좌측 선사유적지를 통과하면 이씨집성촌(이촌)의 인공습지를 보고 강씨 집성촌(강촌)으로 가는 도중에 풍광이 좋고 쉬어갈 수 있는 원두막이 있는 박효암(청주목사와 강릉대도호부사를 지내고 이조참판에 추증됨) 산소와 신도비를 지나 강촌앞의 인공습지도 둘러보고 신탄진에서 올라오는 도로와 만나는 삼정동 삼거리에서 민촌의 하나 남은 고택(고종때 승지 민후식이 지었음)을 보면서 좌측으로 걷는다.

차도를 따라 조금 걷다가 데크길로 들어서면 이 계절에 예쁜 십자가 흰꽃을 자랑하는 산딸나무 가로수를 보며 야호식당 앞까지 걷다가 차도로 올라와 약100여m 걸으면 다시 데크길로 덕골 인공습지에 다다른다.

2016년 조성된 덕골습지는 호수변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인공습지로, 원두막 4개와 화장실,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다.

최근 유아에서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탐방장소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 덕골습지에는 수질정화식물로 알려진 노랑꽃창포, 갈대, 억새 등이 심겨져있고, 유입수는 침강지-깊은습지-지표흐름습지-생태여과지를 거쳐 대청호로 방류되고 있다.

덕골습지를 지나면서 최근 설치된 데크를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며 걸을 수 있고, 갈전동을 지나면 1구간 마지막 지점인 이현동 두메마을 거대억새습지까지 다다를 수 있다.

이곳 작은 개울가에서 해마다 봄이면 도룡뇽과 개구리알을 관찰하고 고라니, 멧돼지 등 동물배설물을 관찰하는 등 재미있는 생태관찰학습이 가능한 지점으로 각광받기도 한다.

이현동 두메마을은 대덕구 녹색농촌체험마을로서, 마을전설이 아득이 전해지고 있는 여수바위(서해용왕의 다섯 손자들이 인간세계를 보고 싶어 고래를 타고 왔는데 삶이 고달픈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도와주다가 밀물때를 놓쳐 돌아가지 못하고 죽은 다섯 손자들의 흔적이 남은 바위)를 둘러보면서 1구간을 마무리한다.

3. 얕으막한 숲속 산길이어서 편안하게 오르내릴 수 있다. **4.** 탁트인 호수와 섬이 다도해를 연상케 한다.

글 **조삼래**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 정책연구위원

푸르름속 노란 깃털의 아름다움 “꾀꼴꾀꼴”

매혹적인 꾀꼬리의 노래에 흠뻑 젖어
외로울 사 이 내 몸은 뉘와 곰 돌아갈꼬

우리는 노래를 잘하거나 목소리가 예쁜 사람을 흔히 “꾀꼬리” 같은 소리를 가졌다고 한다. 그 만큼 꾀꼬리 소리가 아름답다는 얘기인데… 이번 호는 이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꾀꼬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꾀꼬리는 분류학적으로 참새목 꾀꼬리과에 속하며, 봄부터 여름에 걸쳐 우리나라 시골이나 도심지 주변의 산림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여름철새이다.

꾀꼬리 종류는 우리나라에 단 1종이 분포 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만주,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 등에서 번식한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이웃 일본에서는 이 새가 번식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매우 부러워하는 새이기도 하다.

꾀꼬리는 낙엽활엽수림이 무성한 혼효림이나 시골농경지내의 키 큰 나무 등지에 둥지를 틀고 보통 4월에서 8월까지 주로 마른풀이나 작은 나무뿌리를 거미줄로 교묘히 얽어매어 정교한 밥공기형태의 둥지를 만든다. 이때, 둥지는 반드시 “Y”자형의 가지에 매달아 놓는 습성이 있다.

한배의 산란수는 3~5개 정도 이며, 약 17일정도 알을 품으면 부화되며, 그 후 20일 정도 자라면 둥지를 떠나게 된다. 먹이는 주로 산림해충인 각종 나비목 유충을 즐겨 먹지만 각종 나무의 열매도 먹는다.

꾀꼬리는 암 · 수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수컷의 깃털색이 약간 진하게 보인다. 부리는 선홍색을 띄고 눈에서 뒷머리 까지는 까만색의 띠가 있으며 날개깃과 꼬리도 까맣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노란색의 깃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푸르른 색의 숲을 배경으로 노니는 꾀꼬리의 노란색 깃털은 매우 아름답게 보인다.

어떤 이는 꾀꼬리가 〈꾀꼴꾀꼴〉 운다고 표현했고, 또 어떤 이는 〈삐요코 삐요〉 〈삐요코 삐요〉하고 운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재미있게 표현한 꾀꼬리 소리 중에는 음성학적으로 마치 〈담배밭에 조도-령 /머리 곱게 빗고 나오-게(부여지방민요)〉, 〈물레꼬리 조도령 /코뿌리 뾰족(청양지방민요)〉, 〈보리밭에 조도령/담배밭에 큰 아가씨/머리 곱게 곱게 빗고/건너갈까 말까(예산지방민요)〉 등과 같은 소리로 연상했다고 한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한 총각을 짝사랑 했던 처녀가 시집도 못가고 죽은 것이 한이 되어 한 마리의 꾀꼬리가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꾀꼬리가 지저귀는 아름다운 소리는 묘령의 여인이 남자를 홀리게 하는 고혹적인 데가 있다고 했다(강헌규, 공주대 논문집, 제 30집,1992).

사실, 꾀꼬리가 지저귀는 소리는 듣는 사람에 따라 달리 들릴 수 도 있지만 그 소리자체는 매우 맑고 깨끗한 것만은 틀림없다. 많은 새가 그렇듯이 꾀꼬리도 그 특유의 울음소리 때문에 꾀꼬리란 이름이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듯이 말 그대로 〈꾀꼴 꾀골〉 하고 소리 내는 것은 아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들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름 지은 사람이 그렇게 불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새의 학명은〈 Oriolus chinensis 〉라고 하는 데, 여기서 "Oriolus" 라는 뜻이 바로 금빛 색깔을 갖는다는 뜻으로 꾀꼬리 깃털색이 노란색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 된다. 우리조상들은 또 이 새를 황조(黃鳥), 황작(黃雀)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다른 동물들이 번식기 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가끔 특이한 행동을 하듯이 꾀꼬리도 번식지에서 특이한 행동을 한다. 만약 번식지 주위에 낯선 동물이나 사람이 나타나면 심한 경계음을 내며 머리 위를 낮게 날며 공격을 하기도 한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권 1 유리왕 3년〉에 의하면 고구려 제 2대왕인 유리왕이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 새에 대해 노래한 것이 있다.

펄펄 나는 꾀꼬리는(翩翩黃鳥)
암 · 수 서로 놀건마는(雌雄相依)
외로울 사 이 내 몸은(念我之獨)
뉘와 곰 돌아갈꼬(誰其與歸)

유리왕은 유리왕 3년 10월에 왕비 송씨가 죽은 후 고려 골천 지역의 딸 화희와 중국 한나라의 딸인 치희라는 두 여인을 계실로 삼았다. 그러나 두 여인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날 왕이 기산으로 사냥을 나간 사이 하희가 치희를 욕하되 치희가 부끄럼과 분함을 참지 못하고 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유리왕은 왕비를 잃고 헤매다가 나무 그늘에 쉬면서 나뭇가지 위에서 정답게 노니는 꾀꼬리를 보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자신의 처지를 읊은 서정시의 한 구절이 바로 황조가 이다.

그 동안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아직도 우리고장 대청호변 주변의 우거진 숲 사이를 들락날락 하며 묘령의 매혹적인 소리로 남자를 유혹하는 꾀꼬리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즐겁고 온천지가 푸르른 성하의 계절에 노랑 깃털로 조화를 이루는 꾀꼬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 필자는 행복하다.

그러나 최근 도심근교의 개발과 과수나 가로수의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뿌린 농약이 이들에게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다.

글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대강 복원의 시작, 사회적 회복이 되어야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관련 업무지시를 했다. 우선 16개 보 중에 녹조 우려가 높은 6개 보 수문을 6월 1일부터 상시 개방하겠다는 내용이다.

4대강 민관조사 · 평가단을 구성해 앞으로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해 2018년 말 최종 처리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4대강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와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을 환경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 관리 일원화' 도입도 지시했다.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우리 강은 '잔혹사'였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보 수문 상시 개방과 4대강 정책 감사 업무 지시는 과거 단절의 역사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받고 있다.

4대강사업의 시작은 MB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부터였다. '국운 융성의 길'이라던 대운하는 경제성 없이 환경파괴만 있을 것이란 지적이 거셌고, 보수 언론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국민의견 수렴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비판적 입장이었다.

이를 인식한 MB측은 2008년 6월 대운하를 포기하는 척 했다. 4대강사업은 대운하의 우회 추진이었다.(2013년 7월 감사원은 '4대강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은 기후변화 대비, 근원적인 홍수 및 가뭄 극복,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 생태계 개선 등을 목표로 강행됐다. MB와 그 측근들은 4대강사업으로 못 할 것이 없고, 못 이룰 것도 없는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사업으로 만들고자 했다. 4대강사업에 대한 비판은 '신성불가침'의 공격으로 간주해 권력 기관을 동원해 탄압했다.

그렇게 밀어붙인 결과는 '녹조라떼'가 상징하는 극심한 수질 악화였고, 22조 원이 넘는 혈세 낭비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전문가들은 '대국민 사기극', '국토 환경에 대한 반역, 반란', '복원을 가장한 파괴', '자연에 대한 강간'이란 표현을 써가며 4대강사업을 비판했다.

보 수문 상시 개방, 아쉬움도 있지만 의미 있어

박근혜 정부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과 2013년 집권 초기 4대강사업에 대해 일부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지만, 곧바로 사라졌다.

사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머리만 다를 뿐, 몸통은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정치인, 관료, 전문가들로 채워진 집단이었다. 이들은 4대강사업 문제점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다. 보수논객으로 MB 시절부터 4대강사업을 강하게 비판해 왔던 국민의 당 이상돈 의원(전 중앙대 법대 교수)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등장이 박근혜 정부 내 4대강 비판이 사라지게 한 결정적 계기라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4대강 재평가와 4대강 정책감사를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이들, 즉 4대강 찬동인사와 4대강 찬동언론들이다. MB측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일부 인사)은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는 '정치 감사'이자 '정치 보복'이라 반발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같은 취지로 지적했다. 이들은 4대강사업이 이미 3번 감사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3번의 감사가 있었던 건 맞다. 하지만 내용을 따져 보면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했다.

2011년 1월 4대강 1차 감사는 '은진수'라는 MB 최측근이 감사를 맡아 1년여 시간을 끌면서 엉터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1월과 7월에도 감사가 있었지만, 누락된 것이 많다. 22조 원 규모의 4대강마스터 플랜을 단 6개월 만에 결정한 것은 전 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던 일이었다. 100년을 버텨온 왜관철교 붕괴에 대해 국토부는 4대강 탓이 아니라 했고,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콘크리트 보에서 물이 세는 건 '물 비침 현상'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별일 아니라 치부했다. 역행침식으로 지천의 교량이 붕괴된 것도 4대강과 무관하다고 했다.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 당한 물고기 폐사 사건 역시 4대강과 관련 없다고 했고, 365일 24시간 공사과정에서 22명의 노동자들이 죽었을 때는 본인 잘 못으로 돌렸다.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 조사, 국가재정법 상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잘못된 정책을 걸러 낼 수 있는 검증 과정 부실 문제도 빠져 있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이후 우리 국민이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강의 오염을 방치한 문제도 빠져 있다. 이는 4대강 감사가 그만큼 부실했다는 걸 말해준다.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야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 될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4대강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 관리 일원화, 긍정적

문재인 정부의 이번 보 상시 개방에는 아쉬운 점도 있다. 6개 보 수문 개방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환경부가 제시한 '댐-보 연계운영' 계획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하고 어도 영향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상시적으로 수문을 열어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폐를 반복해 일정 수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수질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수문을 개방하기로 한 6개 이외의 나머지 보 수질이 너 나쁘다는 점도 지적됐다. 따라서 극심한 녹조라떼 현상 완화를 위해서는 16개 보 상시 수문 개방이 뒤따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강의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주요 정당에서 모두 공약화

했던 것이 '물 관리 일원화'였다. 그만큼 필요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은 부처할거주의다.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 소하천 등은 소방방재청 등으로 분산된 물 관리 시스템은 국가 물 관리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야기했다.

내용은 유사하지만 부처별로 별도의 계획을 잡고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중복 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 사례가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은 "부처별로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물 관리 일원화가 처음 제기된 것은 1990년대였다. 1990년대는 1991년 페놀사고 등 수질오염 사고가 빈번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았던 것이 '물기본법' 또는 '물 관리 기본법'이었지만, 입때껏 입법안만 제출됐다.

문재인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방향은 법률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만이 아니라 물 기본법 제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우리나라 물 관리 체계에 있어 혁명적인 일"이라 평가했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자칫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거대 사업 시행 부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 10년 동안 4대강사업 추진의 핵심 부서였으며, 국민의 안전을 방치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환경부는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관련 업무 지시는 잘못된 역사를 되돌리는 과정의 시작으로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바라 건데, 강만의 복원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상실했던 민주주의와 사회적 이성과 상식도 함께 회복 될 수 있어으면 한다. 그렇게 만들어야 할 책임은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있다.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시민과 함께 한 즐거운 봄날!

제10회 대청호 환경영화제 & 문화예술거리 열려~

지난 5월 14일 일요일,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Kwater 대청댐관리단 주최로 대청호 환경영화제&문화예술거리가 대청댐 물문화관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대청호 환경영화제는 올해로 어느 덧 11회째를 맞이하였는데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5월에 개최되었다. 2015년 메르스로 인하여 10월로 행사가 연기되어 진행된 후, 2016년에도 '대청호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가을'이라는 모토로 10월 달에 개최되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5월로 앞당겨서 개최하였고 요일도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로 바뀌었다. 대청댐 물문화관 방문객이 토요일보다 일요일에 더 많다는 통계로 인해 일요일에 개최된 것이다.

지난해처럼 아트프리마켓과 문화공연, 직거래장터도 진행되었다. 아트프리마켓은 대전문화협동조합 분들이 참여하여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다양한 기념품과 악세사리 등 물품들을 준비한 판매자들이 참여하여 행사장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올해는 환경 체험 프로그램 부스도 운영하였다. 환경체험 프로그램 부스는 금산생태사랑,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YWCA, 영동직거래장터 참가팀 등이 참여하였다. 금산생태사랑은 '자연과 함

께 하는 캔버스'라는 이름으로 도화지에 풀과 나뭇잎 등 자연물을 붙여 꾸미는 프로그램이었다. 부모와 함께 참여한 아이들의 많은 참여로 내내 북적 북적 하였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미세먼지 OUT! 지구를 지키는 방법은?'라는 주제로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개인 실천사항을 홍보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이 세워지도록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하였고 인증사진을 SNS 등에 올려 홍보하도록 하였다. 대전YWCA에서는 'EM(유용한 미생물)을 이용한 천연 모기퇴치제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EM에 대해 설명하고 천연 모기퇴치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준비한 물품이 모두 소진되었다. 충북 영동의 직거래장터 참가팀에서는 '짚으로 유기농 계란 꾸러미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화창한 날씨에 오전 11시부터 바로 환경영화가 상영되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곤충을 다룬 일본 다큐멘터리인 '리틀챔피언', 애니메이션 '뮨:달의 요정', '로렉스'가 상영되었다. 오후 3시부터 40분간은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문화공연은 대전 동구 대청동 주민으로 구성된 '대청동 두드림 사물단'의 흥겨운 사물놀이 공연과 가수연합팀인 '부르제이'의 즐거운 노래공연이 있었다. 문화공연에 이어서 다시 환경영화 상영이 진행되었다. 단편영화 '수영장의 고양이들', '나무의 시간'과 노후된 핵발전소 문제를 다룬 장편영화 '판도라'가 상영되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많은 분들이 체험도 하고 영화도 보고 문화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양하고 풍성하게 행사가 준비되었지만 아쉬움도 있었다. 무엇보다 행사장 배치를 잘 조정하여 많은 시민들이 영화도 선명하게 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즐길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앞으로는 시민영화제로 하여 환경분야의 영화만이 아닌 다양한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즐거운 영화축제가 되었으면 한다.

1차 이사회 개최

지난 4월25일 오전 10시30분 대청댐물문화관 회의실에서 2017년 1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 10명의 이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윤여표 이사장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세계물의 날 기념 '대청호사진전'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2017년 민간단체지원사업 공모 결정 및 K-water 대청댐관리단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건, 매년 10월에 진행하던 대청호환경영화제&문화예술거리 행사를 5월에 진행하기로 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의되었다.

특히 올해 진행하는 대청호환경영화제&문화예술거리 행사에는 지역네트워크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적극적인 홍보와 연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주문하였다.

더불어 현안 및 현장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사들이 대거 참여하게 됨으로써 우리단체 이사회에서 의논할 논제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네트워크 활동가회의

5월18일 오후 1시30분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사무실에서 2017년 3차 네트워크 활동가회의가 열렸다.

각 지역네트워크의 활동가가 참여한 가운데 4월에 대한 월보고와 5월에 대한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지역간 유사한 사업 및 중복되는 사업에 대하여 서로의 활동방향과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면서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또한 대청호환경영화제&문화예술거리 행사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는데, 이사회의 주문처럼 지역네트워크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연대활동이 다채로워지기 위해 사전에 논의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자는 의견으로 모아져 내년도 영화제행사가 내심 기대된다.

더불어 올해 네트워크 활동가에 다수 변화가 생김에 따라 친목을 도모하고 각 지역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도움주고 받는 사례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가모꼬지가 제안되기도 함에 따라 영동지역의 금강변에서 심신을 단련하는 수련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되었다.

한편 활동가회의는 본부사무처를 비롯, 지역네트워크 팀장 등 총 10여명의 활동가들이 매달 세밀한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면서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회의로써 활동가들간의 어려움을 털어내고 상호 교류를 탄탄히 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금구천 · 서화천 소유역 협의회 운영을 통한 가축분뇨 · 비점오염원 적정처리 및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실천활동

지난 5월11일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사무실에서 금구천 · 서화천(소옥천) 소유역협의회 1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옥천지역 금구천과 서화천유역에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중 대청호유역하천센터 대표의 진행으로 2017년 활동계획, 역할분담, 협의체 위원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2년동안 운영되어오던 서화천유역협의회를 금구천 · 서화천 소유역협의회로 확대개편하면서 서화천유역의 주민실천운동과 협의기능을 유지하고, 대청호로 유입되는 서화천과 합류되어 옥천읍내를 통과하는 금구천 유역을 중심으로 실천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축산 밀집지역으로 환경오염 및 주민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금구천의 상류와 옥천구일농공단지,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가 들어와 있는 곳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유입으로 인한 금구천 수질오염에 대하여 조사하고 확인할 계획이다.

더불어 세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각각의 문제점을 정리해 금구천의 세부적인 수질관리계획을 수립, 적절한 대응방안을 매뉴얼로 제작하고, 지역주민 및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수질개선 실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금구천 · 서화천 소유역협의회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민간단체지원사업으로 운영되며, 대청호로 직접 유입되는 소하천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중에서 가축분뇨와 비점오염원의 현황파악을 통해 자원화 및 에너지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속에 환경사랑실천활동을 전개하면서 궁극적으로 대청호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2017 대청호체험교육 '열띤 호응'

우리단체가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 대청호체험 물사랑 환경교육이 올해에도 대청호유역내 초중고의 열띤 호응속에 진행되고 있다.

대청호체험 물사랑환경교육은 세가지 형태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가 연중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금강~대청호 물사랑지킴이단'을 운영한다. 물사랑지킴이단은 희망하는 학교에서 환경동아리반을 결성하여 1년에 7회(1차시-협약 및 발대식, 2차시~6차시-현장체험, 7차시-활동나눔발표회)의 연속성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물사랑지킴이단은 동명초등학교 4학년전체, 문정중학교 1,2학년 환경과학동아리반, 대청중학교 1,2학년 동아리반으로 결성되어 지난 4월부터 협약 및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현장체험활동이 진행중에 있다.

두 번째 일일환경교육프로그램이다. 각 학교마다 현장체험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대청호오백리길의 어느 지점이 모두 현장체험이 가능한 생태체험장이다. 매년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인 3월에 신청을 받아 접수된 학교의 아이들과 만나게 된다.

세 번째 학교로 찾아가는 물환경교실이다. 2006년부터 양성교육을 마친 대청호해설사 현장강사진이 매주 학습활동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맞춤식 환경교육프로그램이다.

교실에서 강사 혼자 진행하는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환경교실로서, 금강~대청호 우리가 먹는 물 이야기를 주제로, 수환경의 중요성, 물과 인류의 관계, 수질오염예방 및 물절약에 대한 내용까지 대청호해설사들이 직접 만든 교안과 직접 고안한 교육교구들을 통해 놀이와 학습을 접목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매년 신청률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물환경교실은 지난 4월16일 둔산중학교를 시작으로 5월 현재까지 550명의 아이들과 만났다.

한편 매번 환경교육을 준비하는 대청호해설사들은 "우리가 직접 만든 교안과 설명하는 해설사에게 집중하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대할때마다 늘 부족함이 느껴진다"며 "그래서 해설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스터디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는 상시학습활동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청호유역 민 · 관이 뭉치다
대청호 제1지류 '서화천' 수질개선 업무협약

대청호 제1지류인 서화천(소옥천,小沃川, 이하 서화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9개 민 · 관 기관단체가 손을 잡았다. 지난 5월15일 옥천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대청호 녹조 저감을 위한 서화천 수질개선 종합대책이행 업무협약식은 금강유역환경청 주최로, 김영만 옥천군수,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 설문식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김영관 군서면이장단협의회장, 이안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옥천네트워크 대표 등 9개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화천 수질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유역 하수도 확충,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마을 도랑 살리기, 주민 주도형 수질개선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옥천군 서화천 일대에는 소 축사(약 1만 500마리)가 밀집돼 있어 하루 평균 160.7㎥의 가축분뇨가 배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축분뇨가 논과 밭, 하천변 나대지에 방치돼 수질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은 2021년까지 약11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축사 밀집지역에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퇴비 임시보관시설 설치, 방치 축분 수거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단체는 인근 주민들과 더불어 대청댐관리단,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옥천농협, 보은옥천영동축협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서화천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실천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글 **강선경**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영동네트워크 팀장

영동금강환경해설사 심화과정 START!

“영동의 물환경지킴이, 우리와 함께 동참해요”

영동네트워크(대표 배임식)는 지난해 금강환경해설사 양성과정 사업을 진행하였다.

운동본부 사무처에서 2006년부터 양성교육을 진행하여 구성된 대청호해설사들의 활발하고 다채로운 환경교육활동에 힘입어 영동지역에서도 환경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와 의견이 많았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부터 2개월동안 10강의 기초과정이 진행된 바 있으며, 19명의 교육생들이 수료하였다.

영동지역의 물환경, 역사문화이야기 등을 중심으로 기초과정이 진행된 이후, 심화과정에 대한 요구조사가 이어졌고, 그중 10명의 교육생들이 모여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지난 4월27일, 영동네트워크 사무실에 모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애향심이 크다는 사실, 환경교육에 대한 궁금증이 많고 열의가 높다는 사실. 매우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10회의 심화과정을 자체 진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서로 의지하며 배우고 익히고 나누는 심화과정으로 준비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더불어 영동금강환경해설사를 이끌어갈 임원진에 김창엽 회장, 박래석 총무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어 한해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환호의 박수가 이어졌다.

그동안 영동지역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았으나 실제 의견을 나누고 모으는 모임이 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미흡하더라도 함께 의논하고 실행하면서 탄탄한 교육계획과 역할분담을 통해 내실을 기하고 역량을 쌓아가기로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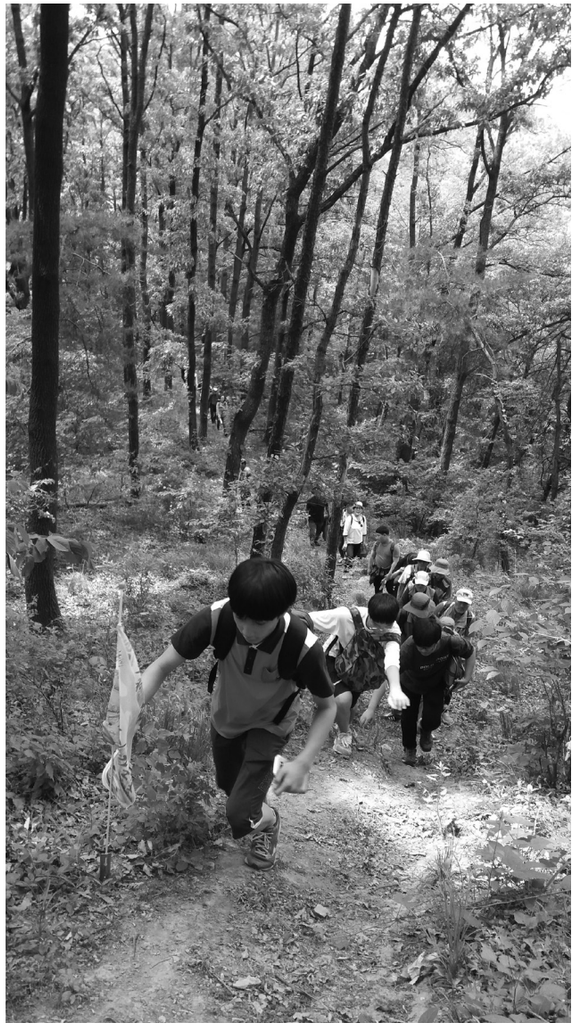
특히 올해 상반기중 5회의 일정은 금강주변의 하천과 습지탐사현장을 다니면서 교육자료를 만들고, 하반기 5회의 일정은 본부 사무처에서 운영하는 대청호체험교육활동에 참관 및 보조역할을 통해 실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일정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이의 실행의 첫날은 5월30일(화). 금강의 발원지 뜬봉샘을 찾아가는 일정으로 해설사들간에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갖기로 협의했다.

한편 영동금강환경해설사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영동네트워크의 소모임으로서, 영동지역내에서 물사랑환경교육을 진행하는 자연안내자들의 모임이다.

학교마다 실내수업으로 진행되는 환경교육을 현장으로 이동시켜 직접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함으로써 환경의식을 확립하고 생활속에서 물사랑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일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과 사명을 갖는다.

글 **오희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옥천네트워크 팀장



“정수병과 함께 걷는 금강여울길”

옥천네트워크 – 대청호길 걷기

옥천네트워크(대표 이안재)에서 매달 운영하고 있는 ‘대청호길 걷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대청호길 걷기프로그램은 옥천지역을 중심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주민들과 함께 금강 주변과 여울길 흔적을 더듬어 일정구간을 걸으며 옥천 지역 문화양식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는 보청천과 함께 금강의 큰 지류 중 하나인 서화천을 탐사한다.

서화천은 군서면 중심부를 휘돌고, 동평리에서 금산천 계곡 물을 받아 군북면 이평리 금강 합류 지점까지 흐르는 하천이다. 더불어 대청호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이기 때문에 주변의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 마을도랑살리기활동과 접목되어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올해에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옥천중학교 학생이 1년동안 함께 할 예정이다.

지난 3월에는 중학교 40여명이 참여했고, 4월에도 30여명이 참여했으며, 5월에는 20여명과 학부모, 교사 등 총 30여명이 참여한 바 있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이구동성으로 힘들었지만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지역곳곳을 직접 걷고 보고 듣고 느낌으로써 하루만에 지역문화환경에 대하여 많은 양의 정보와 지혜를 알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나누기도 했다.

■ 옥천역–옥천경찰서–옥천문화원–체육공원–체육공원 시벽–옥천읍 문정리–서산성–문정리 무스랑이 마을–옥천성모병원–실개천–지용 생가–지용제 축제장 구간 6km

지난 5월 정수병과 함께 하는 금강여울길 일정이 옥천지역의 문화축제인 지용제와 겹쳐짐에 따라 5월의 여울길은 제30회 지용제 특집으로 꾸며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옥천의 자랑 정지용선생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이번 걷기행사는 옥천역 정지용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시비를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향수’ 시가 쓰여진 지용시비 앞,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아 이안재 대표와 김묘순 회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어느 문화탐방을 가든 설명의 내용이나 설명하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설명없이 둘러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친절한 해설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지용선생이 놀던 뒷동산. 성모병원 뒷산에 올라 시 한 편을 낭독하고, 주변의 삼국시대 신라. 백제 싸움을 위해

만들어진 성들이 다섯 개도 넘는다는 설명도 들었다.

마지막으로 찾은 구읍의 지용생가 축제장에서 지역행사 참여를 한 후 읍사무소에 도착,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다른 코스보다 약간은 수월(?)했던 이번 대청호길 걷기 행사는 지역의 문화축제와 결합하니 내용이 더욱 풍성해져서 좋았다는 평을 많이 들었다.

우리지역의 대청호길 걷기는 매달 계속 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글 **이화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보은네트워크 팀장

“서천 갈숲마을로 선진지견학 다녀왔어요”

생태마을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하는 계기

여기 저기 울긋불긋 꽃들이 예쁘게 핀 지난 4월29일, 보은네트워크 회원마을 및 참가단체 회원 34명이 충남 서천군 한산면 마양리 갈숲마을을 방문했다.

보은네트워크(대표 배영도)는 생태마을만들기의 우수한 사례를 견학하면서 우리지역의 생태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

이들이 찾은 갈숲마을은 서천 연봉초등학교의 학군인 구동리, 마양리, 온동리, 연봉리, 용산리, 화곡리, 신성리 등 7개마을 주민들이 모여 2007년 폐교를 리모델링하면서 영화 JSA공동경비구역 촬영지로 유명한 신성리갈대숲 근처라 갈숲마을로 불려졌으며, 최근 생태체험마을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10만여평의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신성리 갈대밭은 갈숲마을의 명소로 금강변의 철새와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기에 충분한 곳이다.

학교에 들어서면 아담한 추억의 교실이 눈에 먼저 들어온다. 옛 모습을 살린 교실은 작은 책상과 의자 칠판에 하얀 분필로 적어놓은 낙서들… 어릴적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바로 옆 교실은 두루두루방 이곳에서 우리는 최재형 사무장으로부터 마을의 유래, 한산모시의 역사, 효능설명을 먼저 듣고 서천의 특산물인 모시송편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였다.

기다란 기차 모양, 동그란 공모양, 만두모양 등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떡 모양들이 본인들의 개성에 맞게 잘 만들어졌다.

떡을 찌는 동안 잠시 마을에서는 우리에게 한삼모시짜기 체험으로 팔찌 만드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그것 또한 신기하면서 이마을의 볼 거리 하나를 더 제공해 주었다.

이 뿐만 아니라 원적외선 찜질방, 모시송편 가공장, 숙박시설, 식당, 학교지붕에는 태양광발전시설도 설치되어 있다.

다채로운 설명을 전해들은 후 우리 견학팀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메인요리는 오향수육과 한산소곡주로 갈숲마을의 향을 느끼는 맛이었다.

폐교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성공요인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지역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자는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폐교를 아름다운 마을로 재탄생시킨 갈숲마을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새로운 매력에 빠져들고 각자 제위치로 돌아온 후, 보은네트워크 견학팀은 향후 보다 더 다양한 경험을 쌓고 견문을 넓혀 우리들이 가진 애향심을 바탕으로 우리지역이 가진 문화환경자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데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보은네트워크는 올해 내고장 청정마을만들기를 위한 거시적 목표를 가지고, 회원마을을 좀더 조직화하면서 대청호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는 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속에 유대를 강화하고 원활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청호 · 금강 녹조발생 차단 '정부 · 지자체 협력'

대청호와 금강 '보' 구간 등 금강 수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녹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키로 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와 합동으로 '금강수계 녹조 예방 · 대응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청호와 금강 보 수역에서는 녹조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1998년 조류경보제 시행 이후 대청호에서는 1999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보' 구간의 수질예보 발령일수도 2012년 44일에서 2013년 48일, 2014년 64일, 2015년 127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청댐 상류는 하천 변에 방치된 축산 분뇨가 비 올 때 수계로 유입되면서 영향을 주고, 금강 본류에서는 미호천 · 갑천 유역 하수 ·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돼 나온 물이 녹조 발생에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대청댐 상류에서는 오는 26일부터 하천 변 방치 축산 분뇨 수거사업이 진행된다.

소옥천 유역에서는 지난달부터 하천 바닥에서 떠올라 녹조 원인이 될 수 있는 부착 조류 제거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금강 본류 환경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하수관로 확장, 하수처리시설 8곳(22억 원 투입) 신설사업이 올해 착공된다.

최근 오염부하량이 급증하는 미호천 유역에 올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가 완료되고, 2개 폐수처리시설도 신설된다.

내달 23일까지 공무원 406명을 투입해 대청호 상류 등에 있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도 한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청호 · 금강의 녹조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일보】 2017. 5. 22. 김강중 기자 kim001@hanmail.net

옥천 대청호, 수상안전취약지 '전락'
펜션업자 · 불법레저업자 은밀한 뒷거래 성행

선착장 주변에는 쓰레기, 폐자재 등 난장판이 따로 없다. 주차장과 선착장에는 각종 생활쓰레기는 물론 바나나보트가 버려져있었다. 또한 곳곳에 담배꽁초와 술병은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었으며 대청호 물 위 곳곳에 계류시켜 놓은 보트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쓰레기, 취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장인 Q씨는 "해마다 이쯤만 되면 쓰레기와 레저를 즐기려는 사람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충북도민이 먹는 식수인데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 지역 펜션업자와 불법 수상영업자들은 서로 손님을 유인한 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버젓이 레저영업을 즐기고 굉음을 내는 모터보트로 호수를 누벼 인근 어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인 옥천군은 대청호가 상수원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는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선박계류시설을 할 수 없어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군은 해당 위반업자들 대상으로 불법행위 계고장을 보내고 고발하고 있지만 장소를 옮겨 다시 영업을 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들로 불법 현수막을 통해 손님들을 모집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향후 사고발생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옥천군청 관계자는 "매주 3~4차례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불법으로 보이는 업자에 대해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이들은 동호회나 친구 등으로 말을 맞춰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오후 4시 44분께 옥천 군북면 대정리 대청호에서 일행 3명과 바나나보트를 타던 A(30)씨가 보트가 뒤집어지면서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부매일】 2017. 5. 22. 이민우 · 송휘헌 기자 minu@jbnews.com

대청호 주변마을에 분홍아카시 꽃 만개

[옥천]대청호 주변마을인 옥천 군북면 대정리 와정마을 뒷산에 분홍색아카시아 꽃이 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곳 20여 그루에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매달린 분홍아카시아 꽃이 주변 흰색아카시아와 대조를 이루며 이색적인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삼삼오오 이 꽃을 보러 산에 올라 아카시아 향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긴다. 분홍아카시아 꽃은 흰색에 비해 꽃송이가 조금 더 크며 가시는 아주 작은 편이다. 꽃 향기와 개화시기는 5~6월경으로 같다.

김우태 마을이장은 "올해는 유독 분홍색아카시아 꽃이 많이 폈다"며 "대청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대전일보】 2017. 5. 14. 육종천 기자 skybell1910@daejonilbo.com

대청호 '육지의 섬' 주민도 '철선타고 물건너' 투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대청호 변 '육지의 섬'으로 불리는 충북 옥천군 군북면 막지리 주민과 옥천읍 오대리 주민도 소중한 주권을 행사했다.

막지리 주민 7명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마을에 있는 4.9t급 철선을 타고 대청호를 건너와 군북면 제3 투표소인 국원리 마을회관에서 무사히 투표를 마쳤다.

이 마을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30가구에 41명(남 24, 여 17)이지만 현재 거주하는 유권자는 모두 16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은 지난 4~5일 사전투표를 했고, 2명은 병원에 입원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군북면 소정리 선착장에 도착한 뒤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승합차를 타고 투표소까지 이동했다.

한편, 옥천읍 오대리 주민 5명도 이날 마을에서 보유한 3t짜리 철선을 이용해 대청호를 건너와 투표했다.

【옥천=뉴스1】 2017. 5. 9. 김기준 기자

옥천군, 수생식물학습원 관광활성화 방안 검토결과 보고회 가져

옥천군은 지난 22일 군청대회의실서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지역내에 숨겨진 비경 수생식물학습원에 대한 관광활성화 방안검토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신강섭 부군수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서 이영호 관광개발 팀장을 비롯해 30명 관련 팀장 및 주무관이 제안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이 팀장은 제안된 총 21건 중 13건은 중장기적으로 추진 가능하고 3건은 추진중인 사항으로 확대 시행 대상이라고 보고했다.

출향인을 활용한 지역문화관광명소 홍보와 관광객 유치는 체계적인 관리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또 마을주민편의를 위한 방아실 배 접안시설 설치요청에 대해서는 대청 댐 관리단에서 검토 중임을 알렸다.

특히 옥천지역 대청호 언저리에 물과 생명을 주제로 옥천 군북면 대정리 일대 6만여㎡에 조성된 수생식물학습원은 2003년부터 주민 5가구가 공동으로 수생식물을 재배하면서 만들어졌다.

지난 2008년에는 충북도 교육청으로부터 물을 사랑하고 지키며 보전하는 교육의 장으로 인정받아 과학체험학습장으로 지정됐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수생식물과 열대지방의 대표적인 수생식물을 재배하고 전시하는 생명의 공간으로 거듭나 휴양교육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50여 종 총 1만여 본이 재배전시되고 있다.

대청호에 둘러싸여 있는 학습원은 천혜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숨겨진 명소다.꽃, 나무, 바위 그리고 호수 등 자연을 벗 삼아서 피로에 지친 직장인들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기에 최적의 자연체험교육장이다.

군은 지역의 숨은 명소들을 찾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부존자원에 대한 올바른 가치인식, 적극적인 관광명소 홍보 등 4건은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신강섭 부 군수는 "이번 보고회를 경험으로 지역현안사업이나 문제에 대해 각 실 · 과 · 소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일보】 2017. 5. 23. 육종천기자 skybell1910@daejonilbo.com

대청호, 제트스키 등 무허가 수상레저 사고 빈발 위험천만해도 '영업' 현장만 단속 가능, 안전사고 방치 불법 계류장까지 등장해도 계도장 보내다 보면 허송세월

대청호가 여름철 수상 안전 취약지로 떠오르고 있다.

돈을 받는 영업행위가 아닐 경우 단속이 불가능한 데다, 현장 단속에 투입될 인력과 장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오후 4시 44분께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에서 일행 3명과 바나나보트를 타던 A(30)씨가 보트가 뒤집어지면서 물에 빠져 숨졌다. 함께 탑승했던 3명은 간신히 헤엄쳐 나와 목숨을 건졌다. 사고 당시 이들은 구명조끼 등 기본적인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트를 몰던 B(37)씨는 경찰에서 "친구가 운영하는 펜션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A씨 등을 만나 바나나보트를 태워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의의 사고가 있었지만, '영업'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영업이 아니라면 수상레저안전법을 피할 수 있다. 또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B씨 등의 주장과 달리 영업 행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2015년 8월에도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대청호에서 웨이크보드를 배우던 대학생이 모터보트의 스크루에 걸려 다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업체 측은 동호회 활동이라고 둘러댔지만, 경찰 조사 과정서 불법 영업이 드러나 업주가 입건됐다.

이 지역 대청호는 대부분 환경부가 고시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Ⅰ권역)이어서 수상레저사업(영업) 자체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동호회 활동이라면 내쫓거나 규제할 근거가 없다.

문제는 사법권이 없은 공무원 입장에서 '영업행위'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법의 헛점을 잘 아는 업자들이 동호회나 취미활동이라고 둘러대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

단속 인력과 장비도 턱 없이 부족해 청원경찰 2명 등 공무원 4명이 관공선 1척을 가지고 72㎢의 대청호 전역을 커버한다.

옥천군 내수면 업무 담당자는 "매주 2~3차례 단속에 나서지만, 면허나 안전장구 착용여부 등을 점검하는 정도"라며 "뻔히 불법으로 보이는 현장이라도 서로 말을 맞춰 둘러대면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러는 사이 일부지역에는 버젓이 불법 계류장(선착장)까지 들어서고 있다.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에는 최근 하천 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계류장이 들어섰다. 지난해에는 무려 8곳의 불법 계류시설이 동호회 활동을 빙자해 들어서기도 했다. 이들 시설은 성수기인 여름철이 지난 뒤 모두 철거된 상태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 관계자는 "불법 시설을 적발하면 규정에 따라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계도장을 3차례 보낸 뒤 고발 등 강제조치에 나서는데, 이러는 사이 여름철이 지나간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연합뉴스】 2017. 5. 8. 박병기 기자 bgipark@yna.co.kr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옥천군

대청호 비경 한눈에 … 옥천 수북~장계 탐방로 뚫린다
2019년까지 수몰된 옛 국도 구간 5.16㎞에 조성

대청호의 아름다운 풍광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탐방로가 조성된다.

충북 옥천군은 옥천읍 수북리~안내면 장계리 5.16㎞를 잇는 녹색 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해 최근 토지매입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구간은 댐이 들어서기 전 옥천~보은을 잇는 국도 37호선이 지나던 곳이다. 황새가 살던 넓은 들판이 있는 황새터와 용이 승천했다는 용댕이터, 옛 취수탑을 활용한 전망대 등이 자리 잡아 경치가 빼어나다고 전해진다.

30년 넘게 사람의 발길이 끊기면서 수목도 원시림에 가깝게 우거진 상태다.

군은 2019년까지 국비 등 67억원을 들여 이곳에 숲길을 뚫고 출렁다리, 나무 데크 등을 설치해 대청호 풍광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호수를 따라 구불구불한 형태로 개설되고, 중간에는 쉼터와 전망대 등도 들어선다.

군은 이 길이 옥천읍 수북리에 들어설 예정인 생태습지와 장계관광지를 연결하는 명품 트래킹 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애초 옛 국도를 따라 길을 낼 계획이었지만, 안전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홍수위보다 1~2m 높이는 쪽으로 바꿨다"며 "그만큼 시야가 트이면서 30여년 간 감춰졌던 대청호 비경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자연생태관 '이색전시'
워터드래곤 도마뱀 등 희귀동물과 곤충 등 전시

대전 동구는 추동에 있는 대청호자연생태관에서 5월3일부터 31일까지 이색 자연생태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아름다운 자연 속 희귀동물과의 만남'을 테마로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동물, 곤충 전시와 함께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선사했다.

전시회에서는 레오파트게코 도마뱀, 슈가글라이더, 팬더하우스 등 7종의 동물과 넓적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 살아있는 곤충의 한 살이 과정은 물론 150여 점의 식물 · 곤충의 화석과 표본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와 함께 야외학습장에서는 자작나무, 영산홍 등 300여 종의 나무와 매발톱꽃, 샤스타데이지 등 야생화도 감상하면서 작은 동물원에서는 금계, 공작 등 12종의 조류와 토끼 등도 다채롭게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금강유역환경청

충청권 4개 시도와 녹조대응 '총력'

충청권 4개 시 · 도와 금강유역환경청이 대청호를 비롯한 금강 수계에서 발생하는 녹조에 대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1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 · 북도가 합동으로 금강수계 녹조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금강수역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것.

대청호는 지난 1998년 조류경보제가 시행된 이래 1999년과 2014년 등 단 두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보 구간의 수질예보 발령일수도 2012년 44일에서 2013년 48일, 2014년 64일, 2015년 127일로 증가세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이달 초부터 이미 초여름 수준의 고온이 지속되고 있고, 하절기에도 고온 건조할 것으로 예보돼 녹조가 대량 발생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대청댐 상류는 하천 변에 방치된 축산 분뇨가 비로 인해 수계로 유입돼 영향을 주고, 금강 본류에서는 미호천 · 갑천 유역 하수 · 폐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이 녹조 발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금강유역환경청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오는 26일부터 대청댐 상류에서 하천변 방치 축산 분뇨 수거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서화천 유역에서는 지난달부터 하천 바닥에서 떠올라 녹조 원인이 될 수 있는 부착 조류 제거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강 본류 환경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각 시 · 도내 하수관로를 확장하고, 22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수처리시설 8곳 신설사업이 올해 착공한다. 최근 오염부하량이 급증하는 미호천 유역엔 올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가 완료되며, 폐수처리시설 2곳도 신설된다.

여기에 대전시와 충북도는 금강의 총인을 저감하기 위해 미호천과 갑천 하 · 폐수처리시설 및 주요폐수배출시설 관리자와 녹조발생 우려기간 자발적인 저감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6월23일까지 공무원 406명을 투입, 대청호 상류와 금강본류, 지류 · 지천 등에 있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녹조원인 물질의 금강수계 유입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청주시

환경·생태 체험프로그램 '호응'

청주시가 환경오염에 범시민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흥미롭고 다채로운 체험위주의 환경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대학의 유능한 인력과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을 이용해 환경교육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과 '환경 · 생태 체험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생태 체험'은 시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상반기(4월~5월), 하반기(9월~10월)로 나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무심천 체육공원 옆 구루물 광장에서 현장에서 참여 신청을 받아 운영 중이다.

태양광 자동차, 천연비누 만들기, 자연의 소리, EM주방세제 만들기, 생활하수 수질조사 등 40여개 프로그램 중 매주 8개씩 선정해 진행된다.

그동안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7회 운영됐다. 상반기에는 앞으로 2회 운영이 남아 있어 온가족이 함께 다채로운 환경체험교육을 즐길 수 있다.

'생활환경교실'은 초등학생 이하 단체를 대상으로 희망기관 30곳을 선정해 각 4회씩 실시하고 있다.

'환경진로체험교실'은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과 연계해 희망 학교의 선착순 신청을 받아 회당 2시간씩 50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24회 신청이 접수돼 교육을 희망하는 중 · 고등학교는 서둘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환경생태 탐사대'는 유치원생 이상의 가족 단위 및 초 · 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심천 발원지, 청주시기후변화체험관, 청주시광역소각장, 청주시하수처리장 등의 희망하는 현장을 직접 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4회 운영계획인 이 교육은 현재 16회가 접수됐다고 밝히며, '환경캠프'는 초등학생 5~6학년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에 충북대 자연과학대학 내에서 이틀간 과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많은 호응을 당부했다.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 / 무주 4-H본부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 4-H본부,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반딧불산나물친환경영농조합법인,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상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군

금산네트워크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사)정심회, 전국축협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곡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 / 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산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보은네트워크

사무국 /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종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 / 대전YWCA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YWCA, 대전YMCA, 해병전우회대전시연합회,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청주네트워크

사무국 / 청주KYC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산단환경발전협의회,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팔백리,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시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 / 천안KYC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천안시

■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

〈 친환경농산물 농민 직거래 장터 〉

매주 수요일은

대청호 농산물 직거래 '생생장터' !

얼굴 있는 생산자와 지혜로운 소비자의 만남!
대청호주변 소규모 농가의 믿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직거래 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대청호 농산물을
만나는 '생생장터'입니다. 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로 오세요!

일 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2시
장 소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1층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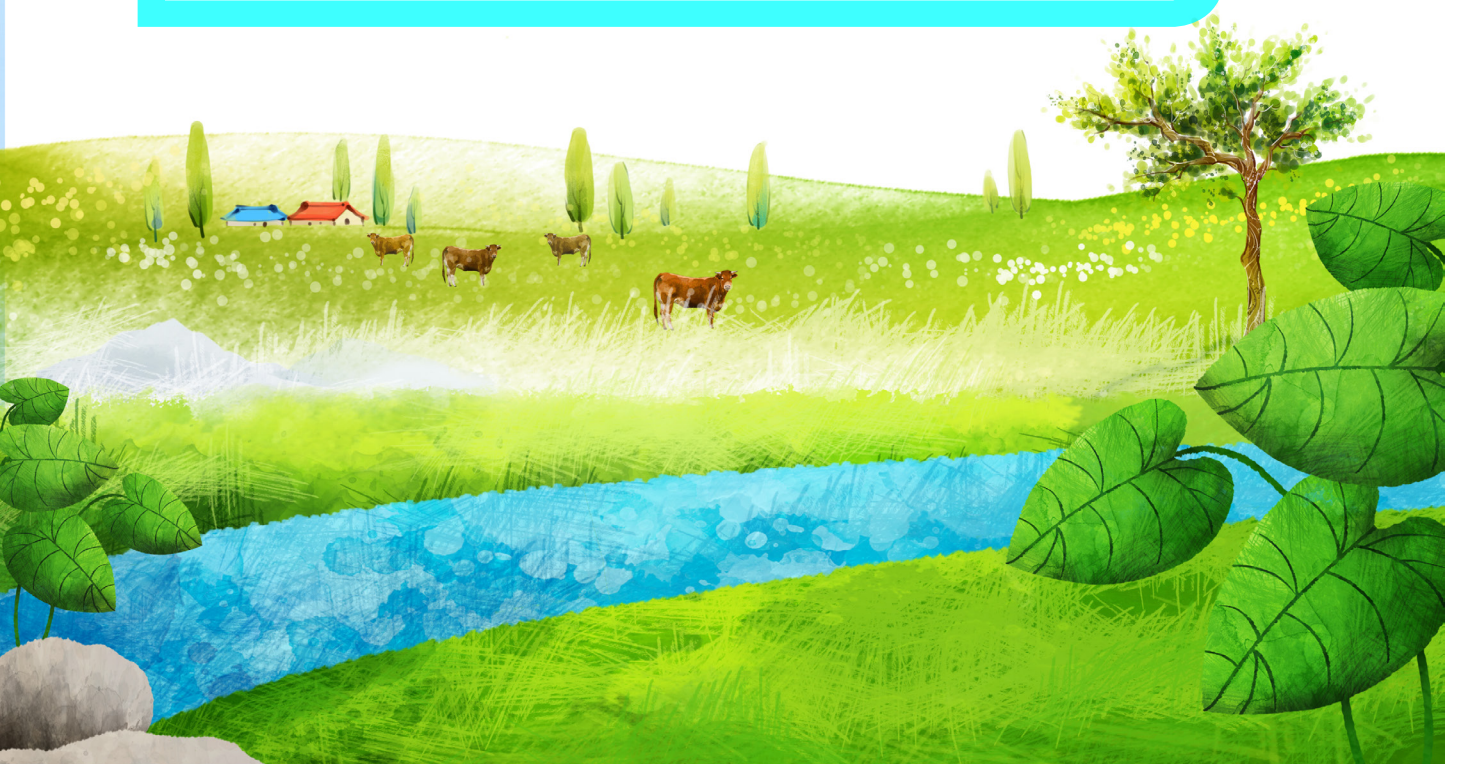
〈금강보호캠페인〉 가축분뇨 적정관리 요령

이것만은 꼭 해주세요!

- 빗물이 축사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회수로, 방지턱을 설치합니다.
- 가축분뇨나 퇴비가 유실되지 않도록 가축 덮개시설, 퇴비사 시설, 도랑을 설치합니다.
- 가축분뇨를 초지나 경작지에 뿌릴 때는 작물의 흡수가 최대가 되는 시기에 우기를 피하여 살포합니다.
- 바뀐 가축분뇨법을 꼭 읽고 숙지합니다.

서화천유역 가축분뇨 적정관리방안마련 워크숍

– 축분저장시설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옥천군 군서면 중심부를 휘감고 금산천 계곡물을 받아 군북면 이평리 금강합류지점 대청호까지 이어지는 서화천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2017년 6월 27일((화) 오전10시30분
장소 대청호유역하천센터 회의실
주최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후원 금강수계관리위원회